

여성 문화 전시실

# 여성



화장은 언제부터, 왜 했나요?

화장(化粧, make up)은 얼굴을 중심으로 몸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써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에 맞서서 용맹하게 보이고,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을 했습니다. 이후 화장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옛날부터 사람들은 화장이나 머리 모양, 옷 등에 따라 장식도 다르게 하여 각 시대별로 나라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입니다.



8 조선시대에 살았던 할머니들은 머리에 어떤 장식품으로 꾸몄을까요? 지금의 머리핀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면서, 각 이름에 맞는 유물에 선을 그어보세요.

비녀



머리 위 가르마를 꾸미는 장식으로, 개구리모양은 궁궐의 상궁들이 사용했습니다.

칩지



머리 뒤에 비녀와 함께 꽂는 장식으로, 크기가 작고 끝이 뾰족합니다.

뒤꽂이



여성들의 긴머리를 틀어올려 고정시켰던 것으로, 옛 여성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9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찾아 적어볼까요?



이것은 손가락에 끼는 장신구로써, 두 짝으로 된 것은 , 한 짝으로 된 것은  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녀와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다르게 써서 만들었는데, 겨울에는 , 봄·가을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나  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옥, 은칠보, 반지, 마노, 가락지, 금



10 옛날 사람들은 화장품을 식물이나 곡식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할 만큼 조금씩 만들었고, 전시된 것처럼 작은 용기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럼 아래에 청자로 만든 화장품 용기 이름을 박물관에서 찾아 선으로 연결해볼까요?



분을 담아두었던 합



머릿기름을 담아두었던 병



분을 물에 겹 때 사용한 접시

청자화형분접시

청자상감국화문화형분합

청자양각연화문유병

**11** 노리개는 여성들이 입는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차는 장신구입니다. 노리개는 여러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진 술 위에 다양한 장식들을 달았는데요, 이 장식들에는 옛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 유물들에 담긴 옛 사람의 마음을 알맞게 연결해보세요.



비취투호삼작노리개   밀화투각향낭노리개   밀화박쥐삼작노리개   옥나비노리개



**투호** 나쁜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장생**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비** 나비가 꽃에 날아 오는 것처럼 다정한 사이를 뜻합니다.  
**박쥐**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 것과 복을 의미합니다.

**12**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디아모레뮤지움은 차문화와 여성문화에 관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아래 퍼즐에는 우리 박물관과 관련 있는 단어들 이 숨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 읽어보고, 단어를 찾아 색칠해보세요.

떨	잠	사	여	피	한	매	복	옷	고
날	푸	디	아	모	레	뮤	지	움	그
청	자	꾸	치	초	다	신	형	비	다
국	랑	녹	자	차	피	빗	피	향	산
등	진	차	룡	삐	날	부	치	조	갑
상	노	차	영	사	고	물	푸	개	어
영	주	리	달	관	신	박	한	달	복
치	장	진	개	만	려	용	비	녀	구

- 1 ○○○: 여성들의 앞가름마를 타거나 빗의 때를 벗겨낼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 2 ○○○○ ○○○: 여러분이 오늘 둘러본 박물관의 이름입니다.
- 3 ○○: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빛의 그릇을 일컬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 4 ○○개: 이것은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난 후, 옷고름 등에 매달아 늘어뜨리던 장신구입니다.
- 5 ○○정약용: 조선후기의 실학자였던 정약용도 차 마시기를 즐겼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함께 차와 관련된 호를 불렀답니다. 정약용의 호(또 다른 이름, 별명)는 무엇일까요?
- 6 ○○: 이것은 머리에 하던 장신구 중 하나입니다. 왕비를 비롯한 귀족들이 어머머리에 꽂았던 것으로 움직일 때마다 예쁜 장식들이 흔들리고, 화려한 색채와 모양이 눈에 띄답니다.
- 7 ○○: 음료중의 하나인 이것은 찻잎을 물에 우려내 마십니다. 제주도와 강진, 보성 등에 이것이 많이 자라는 밭이 있습니다.

the AMORE MUSEUM 어린이 관람 활동지 (초등 3~6학년)

# 차 문화 전시실

# 茶



## 차란 무엇일까요?

차(茶)는 콜라, 사이다처럼 옛날부터 사람들이 식사 후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또는 공부하다가 즐겨 마셨던 음료입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많이 마십니다. 차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먼저 뜨거운 물에 말린 찻잎(또는 티백)을 3~5분쯤 넣어 두었다가, 물 색깔이 연두색으로 변했을 때 마시면 됩니다.

차의 종류에는 녹차, 홍차 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녹차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등을 만들어 사람들과 더욱 친해지고 있습니다.





### ❁ 박물관이란?

역사·예술·민속·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모아 보관하고, 전시하고, 배우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영어로 '뮤지움(Museum)' 이라고 합니다.

### ❁ 디아모레뮤지움이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차(茶)를 마셨는지, 할머니와 엄마들이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화장했는지 알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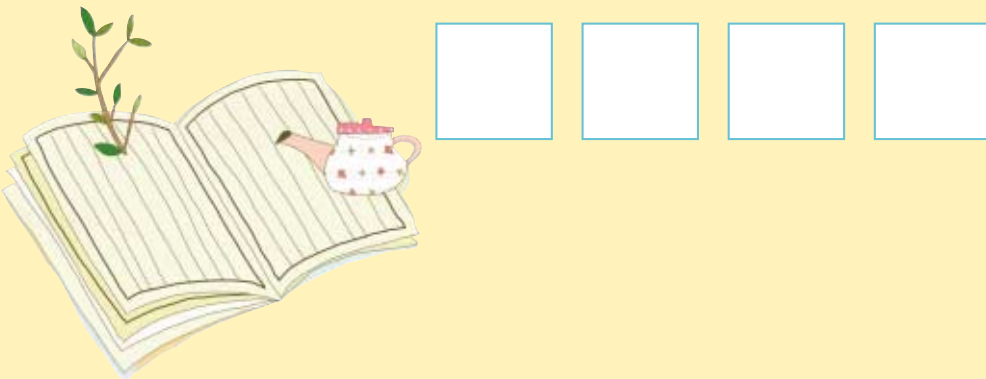


### ❁ 박물관에 놀러 오세요~

- 월~금요일 09:00~17:00
- 쉬는 날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회사 설립일(9월 5일), 사내 여름 휴가기간(홈페이지에 공고)
- 버스로 오는 방법  
서울 : 강남·양재역(1560, 1560-1, 5001-1, 분당경유 9404) / 여의도(사당경유7007-1) / 광화문(분당경유 5500-1)  
수원 : 10-6, 37, 58

1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차는 약 3700년 전 농사의 신이었던 '신농' 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농은 산과 들에서 여러 식물을 먹어 보던 중 많은 독초에 중독되었는데, 마침 차잎을 먹고 해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는 처음에 약으로 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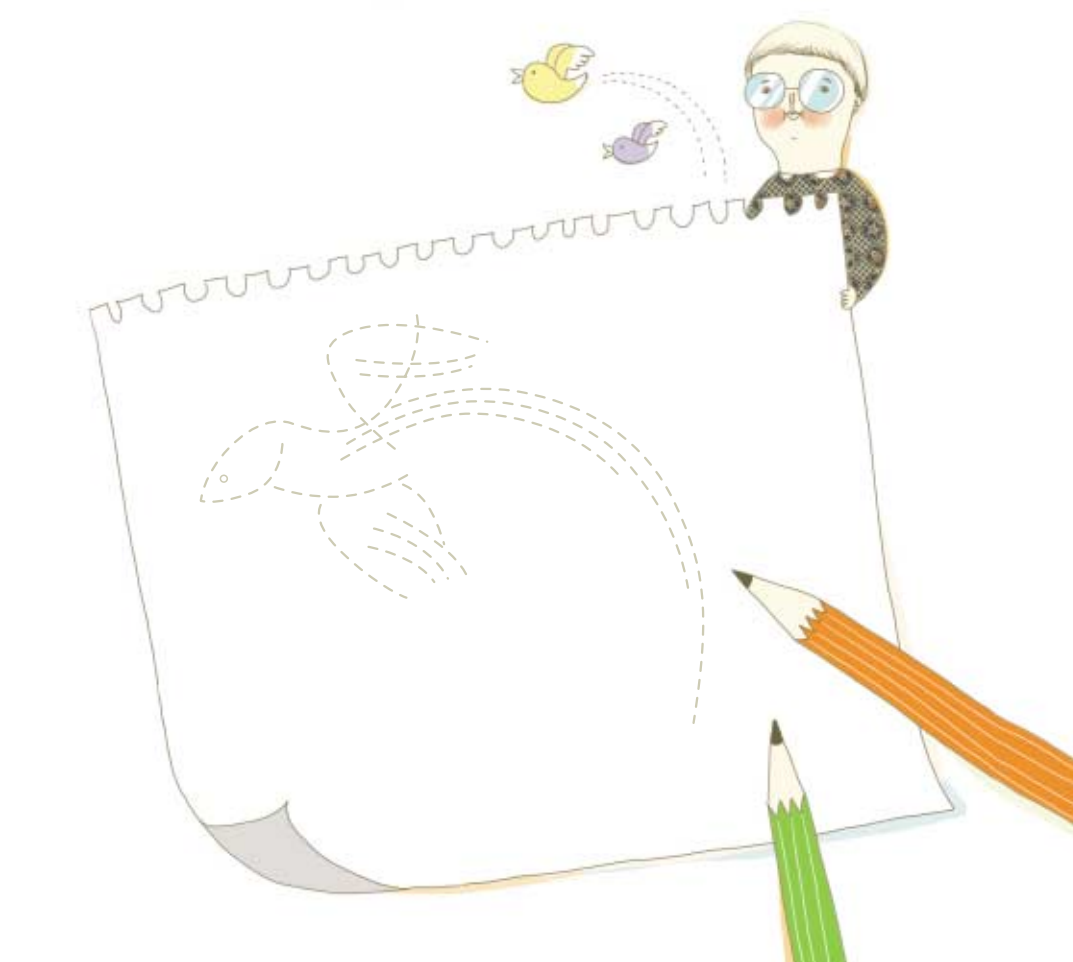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는 9세기에 당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대림' 이라는 사람이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8세기에는 □□□□가 차를 공양한 내용이 『삼국유사』책에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200~1300년 전부터 차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매우 사랑하고 가장 많이 마셨던 때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차를 즐겨 마셨고, 차를 마시기 위해 푸른 색깔의 단단한 도자기인 '청자'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그림 중 고려 시대에 차를 마시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3 고려시대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깃털의 □□새가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는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청자 그릇에 그 새를 새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아래 점선에 따라 그림도 그려 보세요.



4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나 차를 마실 때 향을 피웠습니다. 전시된 이 향로는 사자가 뚜껑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려시대 사람들이 신령스러운 존재로 생각했던  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물이 세상에 나타나면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5 물이나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은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그릇 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먼 옛날 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잔은 다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918년~1392년)에는 푸른 비취색의 아름다운 청자 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비취색의 잔에 흰색이나 검정색 등의 흙을 넣어 문양을 표현했던 ②○○기법은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들 중에는 위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답을 찾아 써볼까요?

기 신 상 익 석 고 감 자 두

①       ②



6 차문화 전시실에서는 시대별로 다양한 종류의 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잔들을 전시실에서 찾아 이름을 적어보고, 각 시대 순서대로 번호도 적어보세요.


7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재배한 차를 세금으로 많이 거두어 들어서, 점차 사람들이 차를 적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선 후기에 차 마시는 유행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의선사였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그 중 누구일까요?

- 직업 : 스님
- 취미생활 : 차나무를 기르고 차 마시기. 그래서 차에 관한 『동다송』, 『다신전』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 친구들에게 자주 선물 하는 것 : 차

